

가정예배 · 구역예배

3

201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디모데후서 · 디도서 · 빌레몬서
히브리서 ·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3

2010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디모데후서 · 디도서 · 빌레몬서
히브리서 · 예레미야애가 · 에스겔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3

2010
March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디모데후서 4장	2 디도서 1장	3 디도서 2장
7 히브리서 2장	8 히브리서 3장	9 히브리서 4장	10 히브리서 5장
14 예레미야애가 4장	15 예레미야애가 5장	16 에스겔 1장	17 에스겔 2장
21 에스겔 6장	22 에스겔 7장	23 에스겔 8장	24 에스겔 9장
28 에스겔 13장	29 에스겔 14장	30 에스겔 15장	31 에스겔 16장

April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 디도서 3장

5 빌레몬서 1장

6 히브리서 1장

11 예레미야애가 1장

12 예레미야애가 2장

13 예레미야애가 3장

18 에스겔 3장

19 에스겔 4장

20 에스겔 5장

25 에스겔 10장

26 에스겔 11장

27 에스겔 12장

교회 주요일정

2월 17일~3월 27일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3월 7일

제2차 성찬식

3월 21일

공동의회(14:00)

3월 28일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2·3부)

3월 29일~4월 2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나의 주요일정

- ① 사순절기(2.17~3.27)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③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④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⑤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새 언약을 위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새 언약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천 년 전에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새 언약을 이루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갑시다. 비록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2010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독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 찬송가 520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결국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과 조건보다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한 때가 악하여서 바른 교훈, 즉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배척하며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욕심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두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 허탄한 세상의 소망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복음 전도자는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사수하며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복음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도 두렵지 않고 전도자의 일과 맡은 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더라도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기에 그 삶 가운데에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전파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4절). 왜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참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벧후 1:1)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디도가 바울을 통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디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복음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복음 증거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고후 2:13),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고후 8:23)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이 참된 증거임을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롬 10:15).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딤후 1:4)

기도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권력, 지식과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죄악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줍니다(11~1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 2:4).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벧후 3:9).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롬 3:2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값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항변이나 변명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피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기도제목 ①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디도서 3장 · 찬송가 415장

4 목요일

지식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인생, 참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3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위대한 삶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시 14:1). 즉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사탄의 세력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딤후 3:9)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어리석음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2월17일~3월27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떠난 것이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한 잠시 동안의 떠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맞아 줄 것을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15~16절).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환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히 3:1). 이제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주의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네시모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몬 1:20)

기도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며 기쁨을 얻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위협과 로마의 박해로 영적인 위협에 처해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증거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들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1~3절).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일곱 부분을 인용하여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한 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4~1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1~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구원 사역의 확실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입증해 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합시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히 1:4)

기도 제목 ①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sal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지키기에 힘을 쏟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4절). 또한 우리의 현재 상태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일일 뿐이고, 나중에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5~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받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며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두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당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히 2:1)

기도제목 ①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제2차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람은 인생의 것들을 좇게 되고, 돈을 향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며, 주를 향한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주목해 보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생각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비결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흘리셨던 보혈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암담하고 갈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 찬송가 200장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엡 2:8~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척도는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좌우에 날 선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어 고발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새롭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시설, 함양충현농원)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간이어야 하며(1~3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4절)여야 합니다.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갔던 모든 대제사장은 인간적인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범죄의 올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하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히 5:10)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되신 예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의 멸망

예레미야애가 1장 · 찬송가 324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짓밟힌 예루살렘으로 인해 애통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함으로 인하여 슬퍼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공의로 판단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응받음 같이 대적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에서 현재 예루살렘에 닥친 파멸의 참담함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아픔과 민족적 회개를 기대하는 열망을 시적 형태로 애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이 장에는 유다의 실존적 상황을 탄식조로 묘사하였으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북받치는 슬픔을 느끼고 있는 전반부(1~11절)와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 슬픔을 노래하는 후반부(12~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괴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충실하도록 힘쓰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적 확대를 위한 근시안적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애 1:20)

기도제목 ① 주님이 주신 고난이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외적인 원인으로는 바벨론의 군사적 침략이었지만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을 시적인 형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전반부(1~12절)와 예루살렘의 탄원을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13~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듯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과 멸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홀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징계를 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만 확립되어 집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항상 단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애 2:18)

기도제목 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을 위해서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종드는 모든 청지기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애가 3장 · 찬송가 439장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슬픔을 솔직하게 고백 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2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이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셧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리신 복과 평강은 이스라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믿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움은 주의 성실하심이 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23절).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진단하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40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호소 합니다. 이 또한 회개를 뜻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 였습니다(애 3:58).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나 간 자리에는 죄의 흔적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저주 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 다”(애 3:24)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멸망의 참상 중에서도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자비한 부인이 자기 자녀를 양식으로 삼을 만큼의 비참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10절). 이 정도면 기근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종교지도자들의 타락과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3절). 종교지도자란 곧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백성이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타락하니 백성을 더욱 영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도 타락했습니다.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함락되고, 파괴되는 등의 운명을 맞게 된 그 일차적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11~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국가로 삼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고후 5:1~2).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애 4:17)

기도제목 ① 우리의 눈을 옮겨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께로 돌이키소서

예레미야애가 5장 · 찬송가 540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직접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1~18절은 멸망의 심판에 처한 선민의 호소와 회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 유다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처한 자로서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한 고통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에 있음을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2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근거하여 선민의 조속한 회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개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당연하고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범죄한 백성까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확신은 단지 조국을 아끼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적 섭리를 통찰하고 그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선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비극적 참상을 묘사하여 범죄한 자의 비참한 최후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 구속사 위에서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기로 승화시키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 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애 5:21)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은 최초의 이상을 본 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넷째 달 초닷새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B.C. 593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이상을 본 B.C. 571년까지 22년간 선지자 활동을 하였고(겔 29:17), 이 시기에 에스겔서를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과 네 생물과 네 바퀴, 보좌의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주어질 예언들이 신적 권위를 가진 정확한 것임을 서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속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회복은 선지자로 하여금 민족의 비극적 최후를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종말론적 승리와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때 현재의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온전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겔 1:28)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먼저 1~7절은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의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소명 수행에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인 에스겔을 향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심과 동시에 위로와 격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역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든 배척하든 그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여호와와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의 태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하게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이다”(겔 2:7)

기도제목 ① 날마다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내 입에 담게 하시고 전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께서서는 죄악의 늪에 빠져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파수꾼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 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시다. 소명의 방법은 이상을 통해서였고, 소명의 장소는 포로된 땅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겔 1:1~3). 이상 중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뜻으로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였습니다(1~3절).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인 유다 백성이 참으로 완고하고 패역한 족속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4~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파수꾼의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바로 살피는 일입니다(22~27절). 그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으면 파수꾼은 침묵해야 합니다. 또한 파수꾼은 진실을 그대로 가감 없이 알려서 열심히 깨우쳐야 합니다(16~21절). 즉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날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파수꾼 된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딤후 4:2; 고전 1:18).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겔 3:17)

기도제목 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은 상징적 행동을 많이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의 심령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정상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는 도저히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바벨론 땅의 백성을 향해, 그리고 멀리 유다 땅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단순히 2500여년 전에 있었던 한 선지자의 기이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회개의 선포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자는 더 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시에 어떠한 어려움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상징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날 나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악의 대가는 실로 쓰라린 것으로서, 첫째 대적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고, 둘째 죄악의 강도만큼 비례하여 환난의 고통이 찾아들며, 셋째 영육 간에 극심한 기근과 피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죄악을 삼가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깁시다(히 12:4).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겔 4:6)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이 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죄악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받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서(출 19:5~6)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크고 가증한 죄악을 자행했습니다(5~7절). 그러고도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선 철저한 징벌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8~17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 엄위하신 공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악인이 설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예루살렘 곧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능욕거리와 조소거리와 멸시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14~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심판중에도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3~4절).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소멸을 위한 파괴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징계하는 가운데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는 연단의 심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며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겔 5:9)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14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9절). 여호와의 질투는 택한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철저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홀로 참신이심을 알려드립니다(1~14절).

에스겔은 여호와와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모든 우상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3~6.13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이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입증합니다. 제 몸 하나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낱 나무덩어리요 돌덩이임을 의미합니다(렐 10:3~5).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심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은 부지런히 우상을 섬겼지만, 심판의 날에는 우상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더 섬기고 위하는 나의 우상은 없습니까? 혹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자녀 등을 더 섬깁니까? 그것들이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전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겔 6:10)

기도제목 ①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닌 구속의 은총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은 뜨거운 동족애로서 애타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끝났도다”(2절), “때가 이르렀고”(12절)라고 말한 만큼 심판의 날은 가까왔고 임박했습니다. “끝났도다”라는 메시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고로 어서 속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속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고후 6:2). 그러나 유다 백성은 어리석게도 세상 재물을 의뢰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20절). 하지만 심판의 날에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여지없이 깨어졌고(겔 6:6) 세상 재물은 거리에 던져지며 오물같이 여겨졌고(19절) 바벨론 군대에 의해 노략 당하고 약탈 당했습니다(21절). 재물을 우상 삼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큰 수치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권세(애굽)를 의지하여 환난 날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23~27절). 유다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비참한 멸망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은총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겔 7:6)

기도제목 ①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꿇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에스겔 8장 · 찬송가 445장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곧 그의 나이 30세 되던 때 처음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겔 1장). 그 일이 있은 후 만 14개월 뒤에 그는 다시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1절). 제2차로 보여진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행되는 것까지 가증스럽고 부패한 악행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짐승과 우상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5~12절). 이는 특정 집단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의 주도 하에 모든 유다 남녀가 가증스런 태양신과 담무스 신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17~18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떠나게 할 뿐입니다(6절). 하나님께서 떠난 그곳은 온갖 죄악이 자행되는 도적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회 됨은 외양적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음란하고 허탄한 것들이 자리잡고 있다면 지금 곧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겔 8:5)

기도제목 ①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통탄해 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게 하소서. ② 사순절기(2월17일~3월27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본문은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겔 8:1~11:25)중 하나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천사들이 타락한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해 살육의 대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거민들은 그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참하게 살육당했습니다(겔 7:10~11). 불행하게도 본문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B.C. 585년 경).

우리는 본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도수가 찰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1~11절). 하나님께서 한 성읍과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아니하시는 공휼의 하나님이십니다(겔 18:23). 심판보다는 구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5~10절). 악인은 하나님의 맹렬한 불 같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심판은 죄악과 불법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깨닫고 삼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갇으리라 하시더라”(겔 9:10)

기도제목 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휼을 베풀어 주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스겔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련의 환상들을 통해 유다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8~11장). 그런데 이 환상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18절). 이어서 숯불의 이상을 통해 음란하고 타락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 유다를 불바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선포하였습니다(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잠시 단절하시겠다는 뜻도 나타내었습니다(9~22절).

진실로 하나님은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결단코 함께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부패마저도 방치해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즐거워하십니다(눅 15:11~24).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만 십자가의 은총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겔 10:18)

기도제목 ① 오! 주여 떠나지 마소서. 십자가의 은총을 내게 더하소서. ② 위임목 사임을 십자가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절망중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거민들은 자기들은 행운ாய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거룩한 땅에서 뽑혀 버린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자들은 멀리 떠났으며 그들이 남겨 놓은 땅은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지만 그곳을 친히 포로들을 돌보는 피난처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재앙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 간 자들과 연대 책임을 느끼며 애통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상의 유형적인 성전의 제한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임을 상징해 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11:20)

기도제목 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2월17일~3월28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 백성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일련의 징조와 메시지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하며 그릇된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행장을 옮김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의 패주를 예언하고 먹고 마시고 떠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기근과 궁핍을 미리 알려 주는 두 가지 상징적 행위를 기술한 부분과(1~20절),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1~28절).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필연성과 당위성, 그리고 임박성을 여러 예언과 환상을 통해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러가지 상징적 행위를 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며 또 조만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무리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였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롬 2:4).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벧후 3:4)라고 주의 강림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는 슬파올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하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겔 12:28)

기도제목 ① 더디지 아니할 심판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움을 받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자의적이고 거짓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릇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멸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죄악을 각각 지적하고 그 죄악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2절),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생각에서 나왔으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말을 선포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뿌리는 거짓이며, 그들과 관계된 것들 모두는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1~7절).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회 칠한 담에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서 참으로 필요한 회개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언제나 풍요와 번영만을 말합니다. 듣는 자들이 원하는 것이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중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라면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겸손히 듣고 따르려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겔 13:10)

기도제목 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찾게 하소서. ②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 14장 · 찬송가 322장

에스겔은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의 권면을 기록하면서 심판의 불가피성과 남은 자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좀더 탁월한 신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간직한 우상이 있는가 돌아보고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2).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과 죄악을 끊겠다는 의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이따한 것이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겔 14:6)

기도제목 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쓸데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그 자체의 조건이나 자질로써는 전혀 보잘 것이 없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유용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로서 울창하고 멋진 삼림 가운데 한낱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실패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던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요 15:4~5),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겔 15:2)

기도제목 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새 사람을 입으라

에스겔 16장 · 찬송가 436장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음란한 부녀'에 비유함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부녀'의 비유를 통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2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택함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음란한 부녀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전의 비참했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참한 출생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믿는 자들도 본래 사탄의 종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뜻에 따른다면 그는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은혜를 거스리는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엡 4:22~24).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겔 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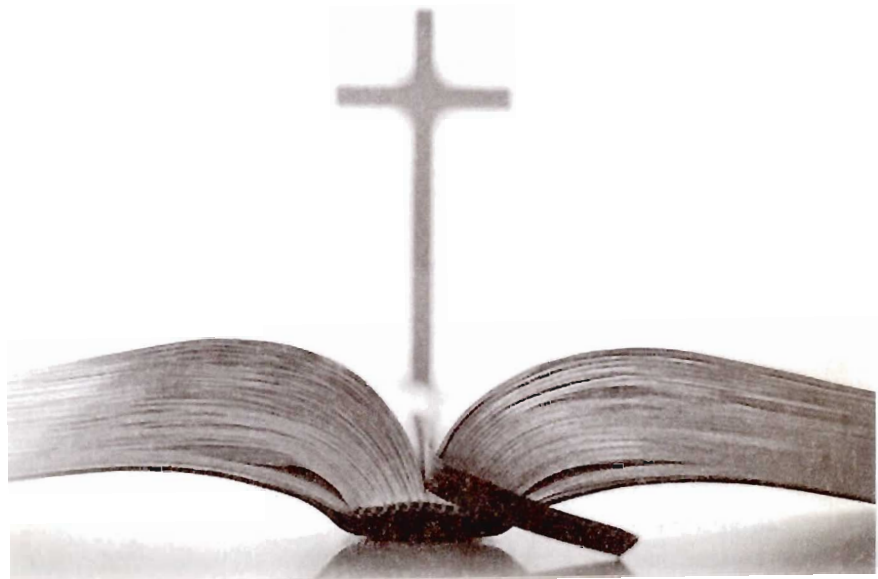
기도제목 ① 주님의 용서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은총만 전하게 하소서. ② 자기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보혈의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3월 구역교재 초점

십자가의 길
나의 길



십자가의 길 나의 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증표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향해 열려 있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내가 걸어야 할 나의 길입니다. 

금요일	본문	제목	초침
0305	고린도전서 11:25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0312	역대상 4:9~10	야베스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0319	창세기 19:11~16	롯의 망설임	말씀 앞에 망설일 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
0326	누가복음 19:11~15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믿음의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씀의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의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새 언약

| 초점 |

새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1: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하라 하셨으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은 두 사람 혹은 양측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나 합의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헌신하며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실것을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구약성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눅 22:20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언약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 말할 때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새 언약에 대한 기대와 약속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렘 31:31~34

※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렘 31:31~34)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 보십시오.

옛 언약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으로 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롬 3:20 / 그러므로 의 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를 이니라

롬 3:21~22

옛 언약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 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은혜는 죄사 함을 넘어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엄청난 은혜의 언약입니다.**

갈 3:23~24 / 이 오기 전에 우리는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
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을 얻게 하
려 함이라

※ 왜 옛 언약(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롬 4:15~16 / 율법은 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_____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취된 새 언약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요 1:29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 11:25

성취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히 9:15 / 이로 말미암아 그는 _____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 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_____ 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3:18 _____

성취된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자기부인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적시어 지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히 7:25 _____

벧전 1:18~19 _____

십자가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 새 언약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의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히 7:22 _____

히 13:20~21 _____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이천 년 전에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십시오. 새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 받음을 만방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소서.
2. 2010년 제2차 성찬식을 통해서 보혈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소서.
4.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소서.

야베스의 기도

| 초점 |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 찬송 |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 본문 | 역대상 4:9~10

⁹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¹⁰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열두지파 중 하나인 유다의 계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다지와 사람임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했으며 그의 이름이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심한 난산을 겪었고,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슬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상 4:9 _____

대상 4:10 / 야베스가 _____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주 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히 5:7 ; 요 11:41~42 ; 막 9:29)을 찾아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필수적이고 귀중한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대상 4:10 /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_____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결코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신 약속(수 1:1~9)을 살펴 보십시오. 그 약속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약 1:12 _____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대상 4:10 /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_____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 89:13 _____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손의 권능에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고백해 보십시오.

마 8:2~3 _____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낳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대상 4:10 /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_____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요 16:33 _____

야베스는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 20:19~21 _____

마 6:13 / 우리를 ☐☐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대상 4:10).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 7:7~8

약 5:15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때에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2. 십자가를 붙들며 매순간 복음을 위한 기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소서.
4. 시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소서.

롯의 망설임

| 초점 |

말씀 앞에 망설임 때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

| 찬송 |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본문 | 창세기 19:11~16

¹¹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¹²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 ¹⁵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¹⁶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눅 17:26~30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우물쭈물 주저하고 망설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가?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불에 타 죽을 뻔 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인생에서 위급한 순간과 주저했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언제 망설였는가?

롯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온통 자신의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딤후 4:3~4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롯에게 전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들조차 능욕하려 했습니다. 그 때 천사들이 이적을 베풀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즉시 소돔에서 탈출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 19:11 /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을 ☐☐☐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 19:12~13

롯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놓아야 했지만 롯은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며 무엇을 했는가?

롯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 19:14~15

※ 만약 집이 불타고 있으니 즉시 피하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롯이 취한 행동과 비교하며 나누어 보십시오.

롯은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던 부와 안락에 대해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가족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롯은 인생의 초반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창 13:10~13). 롯은 아브라함을 먼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즉시 일어나 떠나야 할 급박한 순간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롯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보물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왜 망설였는가?

롯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눅 12:20

벧후 3:10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위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뚫은 지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거렸습니다. 그는 달려가야 했지만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재빨리 응답해야 할 때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물거리며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창 19:16 _____

우리도 뚫처럼 망설인다

많은 사람이 뚫처럼 망설입니다.

신 1:21 _____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향해 달립니다. 급박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 22:16 _____

십자가로

롯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망설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 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 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 은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롬 2:5 _____

계 3:3 _____

롯처럼 망설이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말씀 앞에 주저하고 망설일 때 우리 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4.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소서.

왕이 오신다

| 초점 |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 찬송 |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송가 종려나무

| 본문 | 누가복음 19:11~15

⁽¹¹⁾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¹²⁾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래고 먼 나라로 갈 때에 ... ⁽¹⁵⁾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종려주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왕께서 자신의 왕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마 21:9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는 모습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눅 9:9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편 것은 왕 또는 고귀한 사람이 승전하여 도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려주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눅 19:11).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왕위를 받기 위한 여행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눅 19:12 _____

눅 19:14 _____

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잘 것 없는 출생지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미 5:2 ; 눅 2:7). 그러나 천사들은 놀라운 소식을 선포했습니다(눅 2:11~12).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보려고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마 2:1~2).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권세자들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 27:29~30 _____

눅 23:33 _____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매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 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마 28:6). 부활하신 왕께서 왕위를 받으셨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오다

그 귀인은 왕위를 받은 후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눅 19:12 /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_____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은 떠나야 했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인 자신이 떠나야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훨씬 늦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환호를 받으며 감람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 21:1).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었습니다(행 1:11~12).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 19:12~16 _____

※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왕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살전 5:6 _____

계 22:20 _____

종들의 사역

귀인의 종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눅 19:13 _____

눅 19:15 _____

귀인은 종들에게 은화 열 므나를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단입니다.

마 28:18~20 _____

행 1:8 _____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귀인은 하인들에게 열 므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한 종입니까?

※ 주님 앞에 나는 부지런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21세기의 교회들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영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셔들이셨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행 20:24 / 내가 달려갈 길과 _____ 곧 하나님의 은혜의
☐☐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
기지 아니하노라

딤후 1:3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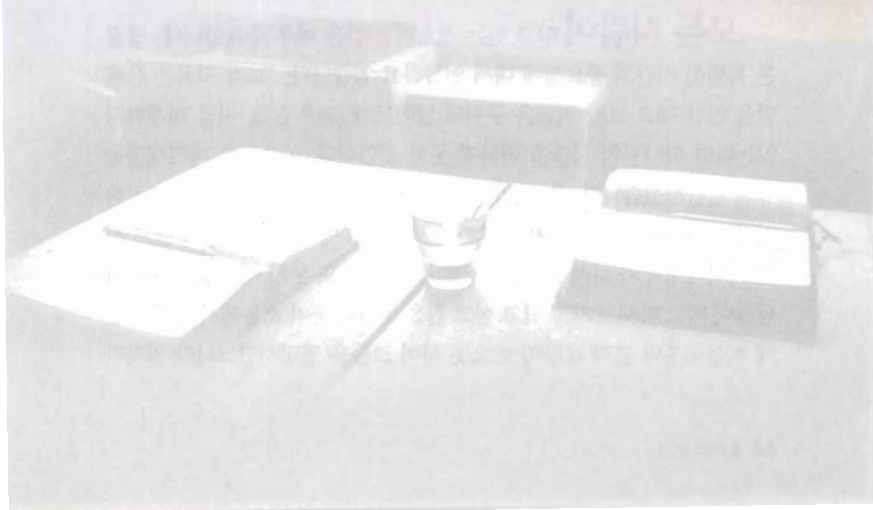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런 입성과 그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소서.
4.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3.29~4.2)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롯의 망설임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¹²⁾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¹⁵⁾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¹⁶⁾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라(창세기 19:11-16)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리하리라”(눅 17:26~30).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우물쭈물 주저하고 망설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청종하고 따라가야 할 때가 되면 결정을 미루며 질질 끌기를 좋아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불에 타 죽을 뻔 했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인생에서 위급한 순간과 지체했던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지체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언제 망설였는가?

롯은 언제 망설였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롯에게 전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들조차 능욕하려 했습니다. 그 때 천사들이 이적을 베풀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창 19:11).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창 19:12~13).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즉시 소돔에서 탈출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롯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온통 자신의 일에 쏠려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놓아야 했지만 롯은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며 무엇을 했는가?

롯은 머뭇거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창 19:14~15). 천사들은 롯에게 떠나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 대해 이미 설명했지만 롯은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전혀 의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조차도 그 위기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불타기 직전에 고위 관직에 있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망설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재촉해야 할까요? 롯은 즉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던 부와 안락에 대해 잊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우선 가족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롯은 인생의 초반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창 13:10~11). 롯은 아브라함을 먼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최상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창 13:13). 지금도, 즉시 일어나 떠나야 할 급박한 순간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롯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보물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족들을 부양했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집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왜 망설였는가?

롯은 왜 머뭇거렸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창 19:16). 천사들은 네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성에 의인이 50명,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10명의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천국과 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 자연 환경과 정치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위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적거렸습니다. 그는 달려가야 했지만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안전지대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재빨리 응답해야 할 때에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앞서 가야 할 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할 때에 여러분은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망설인다

많은 사람이 롯처럼 망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실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만 그곳을 사모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짧다는 것도,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이 땅의 것에 온통 매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마귀와의 전쟁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적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곧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께 나올 것을 간절히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때에 여러분은 뭇처럼 망설이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3월

Copyright ©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